

●엄상용 관광학 박사 '지역의 반란' 출간



구례의 쌍산재, 군산 우체통거리, 광주 극락강역...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자원 활용 사례가 눈에 띈다. 쌍산재는 '고택'을 호텔로 만들어 우리나라 고택 가치를 드높인 모범 사례이고, 군산 우체통 거리는 '우체통'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쇠퇴하는 거리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꼬마역인 극락강역도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한 한국·일본 15개 지역 노하우 실어 현장답사·인터뷰·사진 촬영... 발로 뛰며 집필한 결과물



1. '우체통'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은 군산 우체통거리. 2. 봄밤의 빛 축제로 유명한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 미관 지구' 전경.

우체통·나뭇잎... '지역 자원으로 마을 살리기'

지자체와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기적절하게 나온 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엄상용 박사가 발로 뛰며 현장답사와 관계자 인터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집필한 '지역의 반란'(컬처플러스)이다. 지역 생존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지방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난 한국과 일본 15개 지역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았다. 우리 시대 화두인 지방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우선 각 지역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기차역·고택·카페·스포츠 등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전략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양양은 지리적 측면에서 강릉, 속초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데다 관광객자원도 변변치 않아 관광객을 유입시킬 만한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연히

인천에서 증고차를 몰고 처음 양양을 방문한 장래홍 씨 등 두 젊은이에게 서포마을이 조성되면서 서포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생활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밖에 오랜 시간을 들여 모래사장을 복원, 관광객을 이끈 충남 태안군 기지포해수욕장, 조용한 지방 고택이었지만 청년유턴 일자리 사업(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경북 문경시 화수현 등이 소개돼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 나려는 몸부림이 시작됐다. 도쿠시마현 카미카츠초는 인구 1천500명, 고령화율 50%의 산골 마을을 지방소멸의 대명사로 꼽았다. 산골마을 카미카츠초는 잎사귀를 요리 장식으로 상품화한 이른바 '잎사귀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을 받는 등 산골 마을에 활기가 들어왔다. 또 인구 5천명의 가쓰우라초는 꽃과 인형

별천지라 할 수 있는 '하나마쓰리'를 개최해 매년 3만명 이상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800년 전통 염색의 역사를 간직한 아이즈미초는 '아이즈메'를 브랜드하고 체험관을 지어 염색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한 결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도쿠시마현 나루토시 국도 휴게소에 위치한 체험형 먹거리 테마파크 '쿠루쿠루나루토', IT기업 근거지로 변신한 시골 마을 '카미야마초', 재활용 성지로 부상한 '카미카츠초', 봄밤의 빛 축제 '하루요이 아카리'로 유명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 미관 지구', 동경에서 가장 긴 상점가로 알려진 '도쿄시가지' 등 사례는 우리에게 지방소멸 극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인터넷이나 매스컴, 관련 서적,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아닌 직접 보고 지역민들에게 묻고 싶어 약 2년 동안 국내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 했다. 엄상용 박사는 "한국과 일본은 도시재생, 지방창생 등 용어에서부터 추진 방법까지 다소 차이를 갖지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지역에는 하나같이 열정적인 리더가 존재했다"며 "지역 특산물이나 역사문화 요소, 환경지리 특징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 엄상용은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으나 30년 이상 이벤트 기획과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해 관광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어 특기를 살려 대전 세계박람회, 2002 한·일 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도쿄공연 등 국제 행사에서 행사 코디를 맡기도 했다. 국내 첫 이벤트 정보 웹사이트인 이벤트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방문문화산업협회장,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가벼운 고백=김영민 저자 무겁지도 가볍지도 한 삶에서 완전한 희망에도 절망에도 치우치지 않고 절묘한 통찰을 끌어내는 우리 시대의 문장가, 서울대 김영민 교수의 아포리 증집이 발간됐다. 김 교수가 최초로 선보이는 단문집으로, 총 3부 '마음이 머문 곳', '머리가 머문 곳', '각각이 머문 곳' 주제별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7년간 써내려간 문장을 선별해 엮은 단문 365편이 담겼다. 인생의 불완전함을 응시하는 예리하지만 따뜻한 사유, 세계의 진부함을 파헤치며 이면을 들추는 김영민식 위트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김영사·1만8천800원



▲오렌지와 빨강=청예 저자 포근한 로맨스 소설부터 미래 기담 SF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청예는 이윽고 본인 내면에 있는 집적하고 순수한 검은 감정을 내보이며 소설 '오렌지와 빨강'로 독자를 찾았다. 육망과 충동, 위선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인공의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감동한 반전이 찾아온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누군가는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을 것이고 누군가는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볼 것이다. 여름철, 섬뜩함과 시원함을 함께 선사하는 이야기로 현실에서의 일탈을 꿈꾸던 독자를 만족시킬 것이 분명하다. /허블·1만2천원



▲적산가옥의 유령=조예은 저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음식인 적산가옥에 숨겨진 비밀의 '공포'와 수 세대를 거슬러 공존하는 세 주인공, 유타카와 박준영, 현운주의 '연대'를 섬뜩하고도 애듯하게 그려낸 조예은의 신작 호러 소설이다. 밤새 강풍이 휘몰아친 10월의 어느 새벽, 외증조모(박준영)의 기이한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4대에 걸친 적산가옥에 감춰진 과거의 수수께끼들, 우리 역사의 격동의 시점에서 한 가문의 어둡고 처참한 비밀과 초자연적 현상을 독특한 조예은식 호러로 펼쳐낸다. /현대문학·1만5천원



▲굴 양말이 사라졌어=황지영 글, 이주희 그림 '굴 양말이 사라졌어'는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퍼온 황지영 작가가 선보이는 포근한 동화다. 고요한 밤, 슬픔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 가는 도깨비 루이와 굴 양말만 고집하며 신는 규리가 교실에 퍼진 눈물을 닦는 이야기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지도 알아주지도 못할 때, 규리는 도깨비 루이를 만난다. 그 만남으로 규리는 용기를 내어 다미와 승현이에게 다가가 눈물 도깨비가 돼준다. 이 작품은 슬픔은 없앨 수는 없지만, 계속 지켜봐 주고 말을 걸고 손을 내밀어 꼭 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받아들이고, 이겨 낼 작은 힘이 생긴다는 걸 보여준다. /위즈덤하우스·1만3천500원

기억하고 찾아내고... 흘러간 옛 시간을 소환하다

김순아 시집 '너만 기억하는 시간이 있다' 출간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순아 작가가 시집 '너만 기억하는 시간이 있다'(작가마을)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시간 너머'의 화자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시인이 기억하고 찾아내고 추출하는 시간은 모두 우리의 시간이다.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됐으며 70여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작가가 기억하고 찾아내고 추출하는 시간

은 모두 우리의 시간이다. 그는 자신에게 투영된 화자를 통해 모든 독자의 시간들을 찾아 그 앵글에 맞춰진 서정성을 보여준다. 거친 듯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에 투영된 시인의 자화상이 물 스미듯 녹아나 있다. 하지만 그 자화상은 단순한 연대기적 자화상은 아니다. 언어의 겉 속을 오밀조밀 틈 없이 꿰뚫어 이슬 같기도 하고 광활한 바닷가 모래알처럼 끝이 없기도 하다.



마치 고요한 폭풍우가 지나간 듯 시인의 시들을 읽다 보면 잔잔한 파장의 물결을 느낀다. 그 물결은 또다시 큰 바다의 파고로 변한다. 오밀조밀 채워진 언어의 비늘들이 광활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느낌이다. 정훈 문학평론가는 "때로는 목적 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때로는 잔작에 무엇

을 찾으려 나섰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김순아의 시는 우리 눈을 향해 진자처럼 떨어졌다 가까워진다"며 "시인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고향을 잊은 현대인에게 시인이 찾는 고향의 풍경을 가늠할 수 있다면, 아마 시간의 물결이 요동치는 마법의 공간 틈바구니에서 잊은 듯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이 손짓할 것이다"고 평했다. 한편 김순아 시인은 2001년 '한국문인' 시, 2017년 '시와 사상'에 평론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슬픈 늑대', '겉부니 조각보', '푸른 파도에게'가 있으며 에세이집 '인문학데이트', 비평집 '현대시로 읽는 식인肉食의 정치학' 등이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